

은정어린 《코스모스》 보석머리빈침

2007년 8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삼복철강행군길에서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해당 부문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새로 만든 머리빈침건본을 보아주시었다. 보석이 빛을 뿌리는 색깔곱고 문양고운 여러가지 형태의 머리빈침들을 일일이 살펴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만족한 빛이 어리여있었다. 반짝이는 보석머리빈침을 받아안고 기뻐할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환한 미소를 짓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한 일군에게 새로 만든 빈침이름을 어떻게 달았는가고 물으시었다. 빈침이름을 《민들레》라고 하려 한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여성들이 사용할 빈침인데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을가라고 하시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세상만물을 다 살피고 천만가지 어휘를 다 더듬어서라도 우리 여성들이 리용할 기호품에 제일 멋진 이름을 달아주고싶어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응심깊은 사랑을 폐부로 절감하면서 일군들은 그이를 경건히 우러렸다.

이윽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머리빈침상표를 <민들레>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민들레>라고 하는것보다 <코스모스>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머리빈침상표를 <민들레>라고 하면 꽃이라는 감정이 인차 안겨오지 않습니다. 꽃색같이 민들레는 뒤가지밖에 안되지만 코스모스는 여러가지입니다. 현지도도를 하러 갈 때 길가에 설레이는 코스모스를 보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순간 일군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치었다.

《코스모스》, 부를수록 사랑스럽고 새길수록 뜻깊은 이름이었다. 못꽃들이 다 지는 늦은가을까지 찬바람속에서도 청신한 꽃잎을 펼치고 오래도록 피어있는 코스모스, 붉은색, 분홍색, 흰색, 붉은보라색... 그 색깔은 얼마나 곱고 류달리 해빛을 좋아하는 꽃의 생리는 또 얼마나 돋보이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가없는 그 사랑의 세계에 심취된 일군들은 흥에 겨워 코스모스, 코스모스 하고 몇번이고 마음속으로 외워보았다. 그럴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수행하는 나날에 보았던 코스모스들이 새로운 감흥을 불러일으키며 눈앞에 안겨왔다. 장군님 가시는 길가에 울긋불긋 피어나 그윽한 꽃향기를 풍기던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볼수록 곱다고, 이 고운 꽃이 거리와 마을들에 만발하게 하자고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저이기 격동된 일군들에게는 이 머리빈침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던 잊지 못할 사연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2006 년 12 월 어느날 해당 부문 일군들을 몸소 곁에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들이 즐겨찾는 보석머리빈침을 한번 잘 만들어볼수 없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인지라 일군들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탓할 대신 오히려 자신께서 좀 알아보니 머리빈침에 대한 여성들의 수요가 높다고, 우리 나라에도 보석가공을 전문으로 해온 로동자들이 있으니 그만한 역량이면 우리 여성들의 기호에 맞는 질좋은 머리빈침을 얼마든지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틈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빈침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고 질검사를 엄격히 하는 문제와 생산량을 늘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새겨볼수록 나라의 중대사도 아니고 한갓 여성들의 기호품에 불과한 자그마한 보석머리빈침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더는 없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일군들의 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미더운 우리 여성들을 꽃처럼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게 내세우기 위해 바치신 사랑과 헌신의 낮과 밤은 진정 그 얼마였던가.

혁명을 위해 할 일도 많지만 여성들을 아름답게 가꿔주는데는 아낄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비단천 한필, 약크림 한통에도 친아버이진정을 깡그리 기울여오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아버지사랑속에 태어난 보석머리빈침 《코스모스》!

정녕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기호품이기 전에 우리 여성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자애넘치는 사랑의 고결한 결정체가 아니겠는가. ...

하기에 그날 일군들은 온 나라 여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담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